

다종교사회와 원불교 지도자 교육

박 상 권

(원광대학교)

I. 원불교 교육의 역사

圓佛敎는 1916년 4월 28일에 교조인 少太山 朴重彬(1891-1943)의 대각을 이룬 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실천이념을 천명하고 이 땅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개교한 신종교이다. 그 방법은 오직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¹⁾으로 정신이 주체가 되고 물질을 善用하는 조화로운 문명의 건설에 있다고 보았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문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정신문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가장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명사가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후천 개벽시대라고 불릴 만큼 크게 달라진 현대의 상황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종교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다른 역할과 달라져야 할 종교의 기능을 예시하기라도 하듯이 少太山은 원불교 개교 직후 저축조합의 설립, 防堰工事 등을 통해 理事並行, 靈肉雙全이라는 사실적 종교의 모습을 실천으로 가르쳤으며, 法認祈禱²⁾, 一圓相 奉安³⁾ 등으로 진리적 종교를 지향하게 하였다.

1) 『圓佛敎敎典』 「正典」 總序編 開敎의 動機 참조.

2) 원불교의 교조인 少太山이 9인의 제자에게 蒼生을 구원할 서약을 올리고 6개월간 산상기도를 하게 하였으며, 1919년 8월 21일 최후 희생기도를 올렸는데 死無餘恨이라 쓴 증서에 血印의 흔적이 나타남을 보고 법계에서 우리의 제도사업을 인증한 것이라고 하였음.

少太山の 교단경영 28년과 그의 열반 후 반세기를 넘는 원불교 역사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개교와 더불어 시작된 소태산과 제자들의 공동생활은 晝耕夜讀으로 일관하였는데 매년 冬, 夏절기에 실시하는 전문 훈련은 오롯하게 교육받는 기간이었다. 이처럼 원불교는 교단 초기부터 제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信性을 다지고 교리의 이해와 설교 및 교도관리 방법까지 익히도록 한 후에 敎化 일선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초기 교단의 교육은 이념과 교육목표는 물론이고 일부 방법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제도권 교육의 틀 안에 수용되어 있다.

少太山은 日帝의 식민지배를 받게 된 것이 우리 민족에게 힘이 없었던 탓이라고 보았으며, 깨어나지 못한 의식, 어두운 지혜, 삶의 질을 높여줄 지식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실인식과 진단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육기관의 설립에 정열을 쏟게 하는 처방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로 각 지방의 교당에서는 예외 없이 夜學이 설치하여 한글보급과 국민의식 계몽에 앞장섰으며,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견제로 생전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43년에 열반하였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원불교 최초의 공식교육기관인 ‘唯一學林’이 문을 열었다. 당시 2대 종법사인 鼎山⁴⁾은 唯一學林 개학식에서 「唯一學林은 대종사께서 재세 당시에 직접 뜻을 두시고 ‘唯一’이라는 校名까지 정하셨으나 시국 관계로 그 뜻을 다 펴지 못하셨던 바를 해방을 맞아 이제 개학하게 된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唯一’의 참 뜻을 알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으라. 유일한 목적이란 곧 濟生醫世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無我奉公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一圓世界 건설이니----」⁵⁾라고 훈시하였다. 이 훈시에 원불교 교육의 근본 이념이 담겨 있다.

원불교 성직자 양성을 일차 목표로 설립한 ‘唯一學林’은 전문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전문부는 초급대학을 거쳐 대학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원광대학교가 되었으며,

3) 소태산은 자신이 깨달은 우주의 근원적 진리를 일원상(○)으로 상징하고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도록 하였음.

4) 鼎山 宋奎(1900-1962) 원불교 2대 종법사. 敎祖인 少太山 열반후 선거에 의해 종법사에 선출, 추대되었으며,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에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建國論』을 저술하여 반포하였음.

5) 『鼎山宗師法語』 경륜편 4장.

중등부는 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공식적인 원불교의 지도자 교육은 1946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II. 교역자 양성 교육기관의 실태

현재 원불교의 교역자 양성 교육기관은 3개소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唯一學林’을 전신으로한 원광대학교에 설치된 원불교학과(모집정원 40명)와 靈山禪院⁶⁾과 東山禪院⁷⁾을 통합하여 설립한 靈山圓佛教大學校⁸⁾(모집정원 50명), 그리고 4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 학문의 심화와 교화 능력의 전문성 배양을 목표로 설립한 圓佛教大學院大學校⁹⁾가 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기에 앞서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원불교 교역자를 지망한 자에게 대학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휴학하고 1-2년간 원불교의 교당 및 기관에서 예비 근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시와 대학원 졸업 직전에 敎務考試를 치르도록 하여 합격자에 한해서 出家式을 거쳐 정식 원불교 교무의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원불교의 교무가 되는 교육과정은 (예비근무 2년)¹⁰⁾ + 대학 4년 + 대학원 2년, 도합 6년(8년)의 교육기간과 2회의 자격고시를

6) 원불교의 발상지인 靈山(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 1927년 4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2년 과정의 전문 선원으로 세차례의 중단과 개원을 거듭하여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원불교 인재양성의 일익을 담당해 왔음. 1985년 12월에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1991년 12월에 정부 교육부로부터 대학 학력인정 靈山圓佛教大學校로 인가를 받아 1996년까지 운영해 왔으며 1996년 靈山圓佛教大學校로 승격하였음.

7) 1953년 高等禪院으로 개원하였고 1963년 동산선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영산선원을 수료한 학생을 받아들여 3년 과정의 예비교무 양성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영산선원이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함에 따라 閉院하였음.

8) 1991년에 인가받은 靈山圓佛教大學校를 1996년 12월에 4년제 일반대학인 靈山圓佛教大學校로 인가 받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더불어 원불교 교무양성 양대 교육기관의 하나로 위상을 확립하였음.

9) 4년제 교육을 마친 후 교단의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1-2년간 전문교육을 실시하다가 1996년 12월에 국가 공인 대학원대학교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임.

10) 예비근무 과정은 권장사항으로 대부분 지원자가 이에 따르고 있으나 그렇지 않고 바로 修學하는 경우도 있어서 괄호 처리하였음.

거치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제도는 교육발전위원회의 활동으로 1991년 확정되어 1992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정부의 교육개혁과 대학평가가 입안되기 전인 1990년에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경쟁시대로 돌입한 종교 환경, 그리고 교단 내에서 분출하는 수준 높은 교무의 요청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 혁신으로 교단의 내적 성숙을 도모하고 교화를 활성화하여 세계적 종교로의 도약을 성취'¹¹⁾하자는 취지 아래 교단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원불교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2년 여의 연구결과로 14개 분야의 발전안을 도출하였으며, 20개항의 세부실천계획 목록 및 8년에 걸쳐 시행할 연도별 시행계획을 완성하였다.

이 「교육발전안」에 담고 있는 14개 분야는 ①교육이념·교육목적 ②교육목표 ③교육연한 ④교육체계 ⑤교육과정 ⑥교육방법 ⑦교육평가 ⑧일반대학원 및 기성·특수 전문인재 양성 ⑨교수요원 ⑩연구기관의 설치 ⑪인재선발 및 근무제도 ⑫교육환경·교육시설 ⑬교육재정·장학제도 ⑭교육심의위원회 등이다.

III. 교육목적

원불교의 발전기를 이끌어온 鼎山은 그의 저술인 『世典』에서 교육에 대해 말하기를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하는 기초이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못함에 있다.」고 하면서 「교육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문이 있나니 하나는 과학교육이요 하나는 도학교육이라, 과학교육은 물질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도학교육은 정신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내부 발전을 맡았나니, 마땅히 이 두 교육을 아울러 나아가되 도학으로써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써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¹²⁾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불교 교육의 총론적 지향점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병행

11)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의 말미에 첨부한 원불교 전 교도에게 드리는 '건의문'에서 인용.

12) 『世典』 제2장 제1절 <교육에 대하여> 참조.

발전시킬 수 있는 인류문명의 선구자 양성에 있다. 한편 종교의 입장에 서서 정신을 지도할 원불교의 지도자는 정신문명의 축이 되는 道學教育을 주로 한다. 그러나 물질문명을 수용하고 그를 선용할 능력을 아울러 지도하고 실천할 사명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과학교육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원불교의 행정 조직에는 교육분야를 전담하는 教育部가 있어서 교단이 설립한 교육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교육부는 중등교육기관과 특수목적학교(대안학교¹³⁾)까지 관리하지만 특히 교역자 양성 교육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1991년에 완성 채택된 「교육발전안」은 이 教育部에서 계획대로 추진 집행해 왔다.

「교육발전안」에 명시한 <원불교의 교육이념>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바탕하여 인류를 두루 교육함으로써 시대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濟生醫世의 사명을 실현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성직자인 <專務出身¹⁴⁾ 교육목적>에 ‘원불교의 교육이념에 바탕하여 전무출신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후천개벽시대를 선도할 교역자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발전안」은 이상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전무출신으로서의 출가 서원을 굳건히 한다(出家誓願 確立).
- ② 일원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적 품성을 도야한다(宗教的 稟性陶冶).
- ③ 교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화 역량을 배양한다(教化力量 培養).
- ④ 공중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봉공자세를 확립한다(奉公姿勢 確立).
- ⑤ 사회, 국가, 세계적 과제에 기여하는 창조적 지성을 함양한다(創造的 知性 涵養).
- ⑥ 더불어 사는 삶의 윤리와 자세를 기른다(共同體的 삶 具現).

위에 열거한 여섯가지 교육목표는 원불교 교단에서 설정한 예비 교무 양성 교육

13) 대안학교는 정규교육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고교과정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원불교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영산에 성지학교를 비롯하여 3개 학교가 있음.

14) 專務出身이란 일생을 오롯이 원불교에 出家하여 종교활동에 종사하겠다고 서원한 사람을 가리키며, 일반 교도는 이에 대칭하여 居塵出塵이라고 한다. 專務出身은 다시 구분하여 직접 교화(포교)를 담당하는 教務, 전문적 기능으로 봉사하는 道務, 단순봉사자인 德務 등 3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직무에 따라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통칭하여 教役者라고 한다. 교역자는 종교의 성직자에게 통용되는 칭호이므로 專務出身은 원불교 교역자를 지칭하는 고유용어인 셈이다.

목표이며 각 교육기관은 특성을 반영한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의 교육목표는

- ① 원불교 성직자로서의 인격과 기능의 확립
- ② 원불교에 대한 학문적 탐구
- ③ 제 종교사상의 이해와 현대적 응용능력 배양
- ④ 종교간 협력과 공동선 실현 방법의 탐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는 종합대학 내에 설치된 학과이므로 학내에서는 학칙에 의한 수업을 주로 하고 학생들이 공동생활하는 齋館에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표2>와 같다.

영산대학교와 대학원대학교는 원불교 교무 교육만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수업과 생활을 통합한 단일 교육목표를 가진다.

영산대학교의 <대학헌장>에 명시한 중점 교육 방향은

- ① 원불교의 전통적 수행방법인 ‘정기훈련 11과목’의 집중 단련을 통한 修道者로서의 기본자세 확립
- ② 탐구학습을 통한 기본 교리의 철저한 이해와 원불교 敎學의 심오한 연구
- ③ 靈肉雙全 교육과 봉공활동 생활화를 통한 근로정신의 체득
- ④ 1人 3技 교육을 통한 교화 기능 숙달
- ⑤ 서원관을 중심으로 공동 수행생활을 통한 공동체정신의 함양

대학원대학교의 교육목표는

- ① 구도적 정열과 제생의세의 출가서원 정신을 굳건히 하고 고준한 종교적 인품을 도야한다.
- ② 모든 종교와 사상을 두루 연구, 융통, 협력하게 하며 종교 다원화시대에 필요한 교역자를 배출한다.
- ③ 민중의 사표로서 공을 위하여 私를 버리는 모범과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창조적 지성을 함양토록 한다.
- ④ 새 회상의 창교정신에 투철하고 교법을 널리 세계에 선양하려는 교화 열정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육성한다.

IV.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교육발전안」과 3개 교육기관의 교육 및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원불교의 교무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발전안」의 교육과정

「교육발전안」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대학과정 전공과목의 학문영역별 배정 비율을 정하여 제시하고 각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학문영역은 원불교학과 인접학문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영역별로 설강 비율을 정하였다.<표-1>

<표-1> 교육발전안의 전공과목 영역별 배정 비율(단위 %)

영역별	원불교학(A)						인접학문(B)					B/A
	經典	敎義	歷史	實踐	기타	계	어학	철학	사회과학	한국학	계	
비율	35	30	20	10	5	100	10	50	20	20	100	30/70

※위의 표에서 보이는 원불교학내의 세부영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한다.

經典敎學:기본적인 교서해석학, 교리의 바르고 깊이 있는 해석, 폭넓은 이해

敎義敎學:교리의 사상적, 이론적 체계, 교조론, 신앙론, 수행론, 교리에 근거한 가치관 등

歷史敎學:교리 교단조직 인물 등 교단사, 역사적 현상에 대한 대응론

實踐敎學:기본교리의 응용, 교화에 필요한 설교 상담 행정 등의 학문

(2) 원불교학과의 교육과정

「교육발전안」에 정해진 비율을 토대로 원불교학과에 개설한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단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은 제외)

▲圓佛敎學 領域：一圓相論, 信仰論, 信仰方法論, 修行論, 修行方法論, 大宗經敎義論, 大宗經修行論, 圓佛敎敎史, 敎化學, 敎化相談 및 實習, 說敎學 및 實習, 地域社會와 敎堂, 佛祖要經, 圓佛敎法儀學

▲隣接學問 領域：佛敎學, 印中佛敎史, 韓國佛敎史, 禪思想 및 實習, 中國哲學史, 韓國儒學史, 四書講論, 道敎學, 基督教概論, 現代哲學, 宗教史, 宗教社會學, 타학과 개설 전공인정과목(印度宗教思想, 宗教哲學, 比較宗教學) 어학 사회과학 등의 인접학문은 다른 학과 개설 과목 중에서 일반선택으로 취득하게 함.

1998학년도부터는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필수와 선택의 구분이 없어진 관계로 원불교학 영역의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經典, 敎義敎學 8개 교과목 중에서 6개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최소전공 인정의 경우 인문계 타 학과의 36학점 보다 50%를 추가한 54학점(복수전공을 하지 않는 경우)을 이수하도록 학과 내규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소전공 인정제, 복수전공 허용 등 대학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교육발전안」의 영역별 과목배정 비율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각 학년 담임교수가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 지도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3) 서원관 교육과정

예비교무들이 공동생활하는 서원관은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라 수련의 도장이다. 서원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불교의 수행과목인 정기훈련 11과목을 일과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는데,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년별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하여 부과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학년별로 부과하는 교육목표는 <표-2>와 같다.

<표-2> 원불교학과 서원관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생활표준	順應(도량상규의 이해와 준수)	省察	率先	指導
훈련목표	發心(서원, 신심, 공심, 공부심 확립)	立志	積功	活用
훈련 중점요소	기질단련(보통급, 특신급 계문 준수)	신앙체험, (특신급, 법마상전급)	실천력	교화력
교리공부	기본교서 암기	기본교서 대의 파악	기본교서의 폭넓은 해석과 문제점 파악	교리체계 확립
교단관	주세불관	창립정신과 초기 교단 이해	교단의 사회적 역할	교단에 대한 자기 역할 정립
교양	세계의 고전, 성직자로서의 몸가짐	한국의 전통사상, 세계의 역사, 문화사, 예능분야 취미활동	타종교 이해, 세계철학, 종교사상 이해, 1인1技 습득	현대사회의 이해, 상담법
외국어	영어, 제2외국어 택1	1학년과 동	2학년과 동	3학년과 동
성가	곡위주 암기	가사, 곡 암기	피아노 기초	피아노 연습

(4) 영산원불교대학교 교육과정

靈山圓佛敎大學校는 단설 원불교학부 내에 원불교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국제교화학 등 4개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나 각 전공은 모두 敎務 활동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불교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양을 비롯하여 복수전공 관련 교과목까지 모든 교과목을 자체 개설해야 한다. 졸업학점은 160으로 하며 주전공인 원불교학의 경우 교과과정은 <표-3>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3> 靈山圓佛敎大學校 교과 구분

구 분	敎學敎科		誓願敎科	
	敎 養	專 攻	定期訓練11과목	特別敎育과정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위의 구분에 의해 설강된 분야별 교과목은 <표-4>과 같다.

<표-4> 靈山圓佛教大學校 開設 教科目

구 분		교 과 목 명	비 고
교 학 교 과	교양 필수	국어1·2, 한문1·2, 영어, 한국사, 철학이해, 전산실습	총 21학점
	교양 선택	사회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정치경제개론, 인간심리이해, 교육학, 사회교육이해, 외국어, 한국문화실습, 자연과학	설강과목 중 18-21학점 범위에서 이수
	전공 필수	정전1·2·3·4, 정전특강, 대중경1·2, 대중경특강, 불경1·2, 교사, 예전, 교단법, 교리와 시사	총 56학점
	전공 선택	다원주의시대의 종교윤리, 종교간의 대화, 기독교이해, 불교사상이해, 한국신종교연구, 중국철학이해, 상담과 교화, 설교와 의사소통, 교단행정, 현대사조와 원불교사상의 만남, 한국사상사, 미래문화연구, 원불교사회윤리, 환경윤리, 영성평등사회연구,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연구, 대중문화연구, 지역사회와 교화, 교화방법론연구, 원불교교회사, 특수교화론, Reading Courses, Independent Studies	설강과목 중 24-27학점 범위에서 이수
서 원 교 과	영성 수련 및 정서 함양	11과목 훈련, 음악, 체육, 농업 및 근로교육	총 28학점
	Pass 과목	교양독서, 동·하훈련, 전지훈련	의무 참가
기 타		교양강좌, 졸업논문작성법, 졸업논문	총 12학점
졸업학점			160학점 이상

※영성수련 및 정서함양에 설치된 ‘11과목 훈련’이란 원불교 『正典』 <정기훈련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念佛, 坐禪, 經典, 講演, 會話, 疑頭, 性理, 定期日記, 常時日記, 注意, 操行 등 11과목을 훈련하여 修養力, 研究力, 取捨力을 얻게 함으로써 원만한 인격을 쌓게 하는 원불교 수행법이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교양, 전공별 교과목은 물론이고 齋願館(기숙사)에서의 생활까지 모두 학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160학점제를 채택하여도 원불교학과의 140학점제에 비해 크게 과중하지는 않다. 다만 제2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 이수학점 외에 해당 전공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점 부담이 큰 편이다.

(5)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육과정

대학원대학교는 수업연한을 4학기 이상으로 하며 40학점을 졸업취득학점으로 한다. 교과과정은 영산원불교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교학교과와 서원교과로 구성하며 이를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서원교과는 주로 필수화하였으며 졸업학점 외에 이수하도록 Pass화 하였다. Pass과목에는 현장실습과 특수훈련이 포함된다. 교과목은 필수 31학점, 선택 27학점 합계 58학점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졸업학점을 취득하려면 선택 27학점 중에서 9학점(3과목)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교과목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大學院大學校 開設 教科目

구 분		교 과 목 명	비 고
전공 필수	학점교과목(12과목 31학점)	正典研究1·2, 大宗教研究, 宗師法語研究, 敎化相談과 巡敎, 禮典實習, 說敎演習1·2, 敎徒訓練法研究, 敎堂運營 및 敎團行政論, 聖歌, 實踐敎學 및 論文指導	
	Pass과목(7과목)	敎堂敎化實習(40일), 特殊敎化實習(7일), 敎化特講, 修養科 實修, 取捨科 實修, 産業熏蒸訓練(7일), 禪 訓練(7-10일)	實修 및 訓練과목은 전학기 공통
전공선택(9과목 27학점)		佛敎學研究, 儒學研究, 老莊學研究, 初期敎書研究, 創立人物史研究, 韓國近代史와 新宗教運動, 어린이敎化研究, 學生敎化研究, 青年敎化研究	
합 계		28과목 58학점(졸업이수 40학점), Pass 7과목	

V. 교육방법

각 교육기관별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의 학습, 서원관에서 공동생활의 규칙과 지도교무(사감)에 의한 수련 및 인성교육, 각종 실습을 통한 기능교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다양성은 원불교의 지도자인 교무가 종교적 신앙과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숙시켜야 하는

수도인임과 동시에 일선 교화현장에서 교도를 지도하는 교화자이며,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봉공인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방법은 집단지도와 개별지도를 병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체질화, 내면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의 교무 양성 교육은 교육보다는 포괄성을 띤 훈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도인, 교화자, 봉공인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도인 양성교육

원불교인은 궁극적 진리의 상징인 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신앙문과 수행문을 밝아야 한다. 그 중에서 수행문은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으로써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三學을 닦아가도록 되어 있다. 삼학은 일원상 진리의 세 가지 속성인 空, 圓, 正¹²⁾을 표준으로 하여 전인적 인격의 3요소인 知, 情, 意의 원숙한 경지를 지향하게 하는 공부 과목이다.

삼학을 닦아 가는 세부 과목으로 정기훈련 11과목이 있다. 11과목은 서원관의 공동생활 속에서 매일의 일과를 교육 프로그램화하여 실시한다. 11과목 중 염불, 좌선은 정신수양 훈련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과목이며,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취사 훈련과목이다.

경전에 대한 해석과 현실 응용의 방법은 정규 강의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밖의 모든 과목은 짜여진 일과표에 준하되 각자의 형편에 따라 수행 시간을 가감하여 실시하고 매일 실시 여부를 자기 점검표에 기재한다. 서원관에는 지도교무가 상주하여 개인의 점검표를 열람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해 훈련 진행 정도와 성과를 관리한다.

영산대학교는 11과목 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학점화하고 있으며, 원불교학과와 대학원대학교는 별도의 평가방법에 의해 학년별 진급심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인격의 완성체인 부처를 이루고자 함(成佛)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인격으로 타인

12) 『大宗經』教義品 7장.

과 사회와 세상을 위한 헌신 봉공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교화자 양성교육

각 종단의 지도자 교육이 그러하듯이 원불교의 교무 교육은 일선에서 성직 활동을 수행할 인재의 양성이 주 목적이다. 그러한 성직 활동을 원불교에서는 ‘敎化’라고 한다. ‘敎化’란 내 종교의 세력을 넓히고 많은 신자를 확보하는 일에 앞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敎導感化, 敎導傳化, 敎導化益의 줄인 말이며, 종교적으로는 凡夫가 변하여 聖人이 되게 하고 狐疑者가 변하여 正信者로 되며 그릇된 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말한다.¹⁶⁾ 원불교 교도로 입교시키는 일은 원불교의 교법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일 뿐이다.

그러므로 교화의 일차 대상은 교도이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비교도도 교화의 대상이다. 교화의 책무를 띤 원불교 교무는 깊이 있는 교법의 이해와 각각의 근기에 따라 應病與藥하기 위한 상담 기법, 개인의 심리 및 사회 현상의 바른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신앙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사상과 타 종교의 교리 사상에 대한 지식도 필요로 한다. 앞서의 교과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 종교의 이해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제종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지식에 우선하여 탁월한 종교적 인격을 갖추고 종교적 희생정신을 실천하여 피교화자를 인격적으로 감화시키는 일이 더 중시됨은 말할 것도 없다.

(3) 봉공인 양성교육

교무는 일선교화를 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화 사업 행정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교무가 담당할 수 없는 특별한 전문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의 경우는 道務라는 성직 수행자가 담당한다.

그러나 교무도 교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자에 그치지 않고 직접 또는 교도의

12) 『圓佛敎事典』 87쪽 참조.

조직을 이용한 봉공활동(교당별로 봉공회를 조직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또는 관심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종교의 활동이 다변화함에 따라 종교인으로서 봉공활동에 필요한 전문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확대됨은 물론이고 보다 깊이 있는 전문성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원불교 교육부에서는 정규 교육과정(4+2)을 마친 후에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분야별로 학사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교육 평가

원불교에서는 예비교역자의 교육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 따라 상급학년으로 진급여부를 결정하는 진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비교역자 진급심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가과목 : 修養科, 研究科, 取捨科

修養科—객관적 평가과목 : 念佛, 坐禪

주관적 평가과목 : 誓願과 信心, 專一, 忍耐, 眞實

研究科—해당학교 전 교과목

取捨科—객관적 평가과목 : 수행일기, 제반 생활규정 준수

주관적 평가과목 : 責任, 統制, 融和, 公心

② 진급기준 및 미달 조치 : 별도의 성적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각 과 평균 70점 이상인 자는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며 미달자는 진급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또는 예비교역자의 자격을 상실함.

VI. 기성인력의 재교육

원불교 교무는 성직 근무 년공과 활동 실적, 수행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의 급으로 나뉘어진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역자고시에 합격한 후 出家式을 거친

사람에게는 5급교무 자격을 부여하며, 그 후 해당 자격에 따라 4~1급의 별을 둔다. 이러한 급수 제도는 성직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평등한 예우와 인사의 합리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원불교 교도는 수행 공부의 정도를 평가하여 6階의 법위¹⁷⁾를 수여하므로서 자율적인 공부를 촉진하고 있으나, 法位는 개인별 승급의 중요한 요건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인격의 척도인 법위와 현실의 직무수행 자격인 級數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각 급별 敎務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道務¹⁸⁾, 德務¹⁹⁾의 경우도 같음).

5급 교무—법위 특신급 이상인 전무출신으로 5급 교무검정에 합격한 자

4급 교무—5급 교무 중 법위 예비법마상전급 이상, 근무 4년 이상으로 그 기간 중 상당한 실력을 갖추며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3급 교무—4급 교무 중 법위 정식 법마상전급 이상, 법랍 15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으로 상당한 수행과 교화의 실력이 있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2급 교무—3급 교무 중 법위 예비법강항마위 이상, 법랍 20년 이상, 근무 15년 이상으로 수행과 교화의 공이 드러나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1급 교무—2급 교무 중 법위 정식법강항마위 이상, 법랍 25년 이상, 근무 20년 이상으로 수행과 교화의 공이 드러나 대중의 사표가 되며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위의 자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급 이상으로 승급할 경우의 조건은 法位, 근무 년한, 훈련, 자격전형의 4가지이다. 그 중에서 法位는 「敎徒法位査定規程」에

17) 원불교인으로서 수행의 정도, 즉 원불교적인 인격을 갖춘 정도에 따라 法位를 부여하고 그에 해당하는 호칭으로 부른다. 수행의 정도는 『正典』 <法位等級>에 의하여 해당되는 戒의 준수 정도를 주요 척도로 한다. 법위는 普通級, 特信級, 法魔相戰級 등 3級과 法强降魔位, 出家位, 人覺如來位 등 3位로 구분하며 각 法位 사이에 豫備 級을 두고 있다.

18) 道務란 전문직에 종사하는 원불교 교역자를 말함.

19) 德務란 교화나 전문직이 아닌 단순 노동으로 봉사하는 원불교 교역자임. 敎務, 道務, 德務는 활동 영역에 따른 직종의 구분이며 이들 모두를 在家敎徒와 구분하여 專務出身이라고 함.

의해 매 3년마다 실시한 자료를 이용하며, 훈련은 이른바 기성인력의 재교육에 해당된다. 자격 검정은 별도의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여타의 조건을 종합하여 심사하는 절차로 대신하고 있다.

재교육은 원불교의 훈련기관(훈련원)에서 실시하며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훈련을 집행한다. 일반적으로 재교육이라 하면 교육명령에 의해 현재의 근무처를 떠나서 장기간 입소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원불교에서는 현직 근무를 유지하면서 단기간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재교육을 위해 대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그 대신 단기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교육 효과의 연속성과 실용성의 효과를 기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5급의 경우 년 3주, 4급 이상은 년 1주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매년 훈련위원회가 마련한 지침에 의해 훈련원에서 편성하며 교단적 관심도와 상황성을 반영하게 되므로 일정하지 않지만 큰 틀은 오랜 전통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참고로 1998년도 주요 훈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훈련 주제 : 「나를 바꾸고 일터를 살리자」

①교리 훈련 : 경전강독, 강의 및 주제별 토론

②신앙 점검 : 신앙 체험 발표 및 토론, 서원반조

③수행심 고취 : 정기훈련 11과목 훈련, 자기 점검표 작성, 노동(공동작업),

④교화력 배양 : 교화 주제 강의, 교화 사례 발표, 문제제기 및 토론, 분야별 특별활동,

⑤사회 인식 : 사회의 현안 문제 및 사회의 조류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들 문제를 원불교의 교리 정신에 입각하여 극복할 수 있는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으로서 1998년에는 'IMF 성공전략', '21세기와 禪定文化', '교단의 과제와 우리의 역할' 등의 주제 강의를 실시하였음.

위의 훈련 내용 중에서 ①~④는 매년 큰 변동없이 계속 실시하며, ⑤의 경우는

사회와 원불교 교단 및 구성원의 공동 관심사를 도출하여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특별 강의로 실시한다.

교무훈련은 원불교의 모든 교무가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200명 내외를 기준으로 8~9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또한 매 회마다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가 직접 임석하여 설법하고 성직활동에 대한 격려와 분발을 독려한다. 이 시간이 지친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커다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교무훈련은 현재의 직책을 유지하면서 단기간 훈련에 참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훈련기간 중에 해당 근무처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과정 이수를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도 예외없이 전 훈련과정의 60% 이상을 이수하여야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승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敎報』(원불교의 공식적인 공람용 문서)에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VII. 과제 및 대응책

(1)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단의 과제

종교가 종단의 세력 확장을 위한 경쟁을 일삼는 것은 종교 본래의 사명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경쟁은 내실을 기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간의 경쟁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종교간의 경쟁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내실을 기하는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세력확장에 치중한 과당경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종교들간의 경쟁은 종교의 본래적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경쟁력의 목표를 정립해야한다. 그 목표는 원론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팽창주의적 사고가 일부 성직자와 신자들 사이에서 자생하여 타종교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방이나 물리적 행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본래적 사명을 다하므로써 그 종교에 대해 감동과 감명을 일으키는 것이

종교가 지향해야할 경쟁력이다. 그러한 경쟁력은 일차적으로 교법에 바탕한 교단의 정책에서 비롯되지만 실체는 성직자들의 자질에 달려 있다. 성직자들이 종교적 회생정신, 봉사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사명감에 얼마나 불타고 있는가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금년도 본 학회 연구 주제인 「다종교사회와 종교 지도자 교육」의 논의도 그러한 경쟁력의 타당성과 충실도를 점검해 보자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다른 종단들도 크게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원불교의 실정에 비추어 열거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인력 수급의 문제이다. 선진국들일수록 종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퇴조하는 추세를 보이며 성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그러한 추세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직 지원의 적령기인 대학 수험생들은 인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사유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성직으로의 진로를 거의 외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들마저 자녀의 성직 진출을 꺼려한다. 그 결과로 교역자를 양성하는 대학, 학과들이 법정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

둘째, 지원자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지원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종교적 사명감을 척도로한 적성보다는 학력 수준에 맞추는 지원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는 성직을 생계수단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도에 탈락하는 수도 적지 않다.

셋째, 지원자 감소 현상 속에서 원불교의 경우는 특히 여성인력이 감소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원불교에서는 여성 성직자의 정서적 지도가 크게 주효했었고 그만큼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기여해왔었는데 여성 성직자(교무)의 독신 생활이라는 전통이 현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성직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주로 종단 외적인 요인 즉 사회의 생활 환경과 문화적 의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외적 요인을 변화시켜서 국면 전환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종교들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극복의 노력은 기성 성직자들이 가치관의 측면에서 많은 양보를 해야 하며,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과 투자

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2) 향후 대응책

위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각 종교들이 공통적일 것이라고 보며 원불교 입장에서 그 일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종교활동의 활성화 및 대사회적 투자의 촉진이다. 종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은 포교에 열중하는 일보다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므로서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고취하는 일이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언제나 종교가 자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감동과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어떤 선교활동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종교활동의 활성화는 성직자의 정신자세와 실천적 활동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성직자에게는 포교활동의 기능 못지 않게 성직에 대한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성직자 교육은 종교 본질 구현의 사명을 다지는 정신교육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그런 사명을 수행할 기능 및 전문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의 종교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성직의 길로 유인하는 현실적 방법은 성직자에 대한 복지의 실현이다. 대개의 종교들은 성직자들에게 희생적 봉사를 요구해왔고 사회의 인식도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풍토는 그러한 희생을 타인에게 요구할지언정 자신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풍조를 단지 세속적인 물량적 사고라고 보거나 신성한 성직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난할 상황이 아니다.

넷째, 종교간의 협력에 의한 새로운 종교운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종교간의 과당 경쟁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보면서 민심은 점점 종교에 대한 불신으로 치닫고 있다. 종교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지는데 대한 반작용이다. 따라서 종교의 본래적 목적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 사안에 따라 종단간, 교단간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각 종교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교단주의의 극복이 종교에 대한 외면의 시각을 돌려놓

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과 대응책은 종교 지도자 교육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없이는 성직 지원자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런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 교단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교육이 계속된다면 종교는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앞서의 대응책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대응의 주체는 교단의 지도층이 내려야할 결단과 기성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 전환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수행할 부분들로 나누어진다.

원불교에서는 창교 당시부터 위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교화, 교육, 자선이라는 교단 삼대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와 대중은 과거보다 더 강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자성하며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나타난 현상과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앞으로 타 종단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참조하고 사계의 객관적 평가를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圓佛教 正典
- 圓佛教 大宗經
- 鼎山宗師法語
- 圓佛教 世典
- 佛法研究會 創建史
- 圓佛教 教育發展案